



아우내(併川) 시장의 유래와 이동 과정 소고

글 ·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1. 들어가는 말

천안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병천면은 2012년 말 현재 36개리 85반(9개 법정리)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56.4km²(주거지 0.8, 농지 11.8, 임야 38, 기타 5.8)이며, 인구는 2,958세대에 6,404명(남 3,296명 여 3,108명)이 거주하고 있다.¹⁾

아우내(併川) 시장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병천면 사무소 주위에 발달되어 있는데, 순대와 오이 그리고 잡곡으로 유명하다.²⁾

그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인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시장에서 3,000여 명의 시장꾼들이 호서지방 최대의 항일독립만세운동을 벌려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사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다.³⁾

그래서 그런지 아우내 장터에서 5일장이 서는 날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1) 2013.1.1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사무소 홈페이지 우리 마을 소개 일반현황 참조.
 2) 辛相龜, 「아우내 단오축제」, 대한정판인쇄사, 1998.12. pp.123-124, p.159. ; 천안시, 「천안의 맛 자랑」, 2005.11. p.55. p.216. 일제시대 말부터 아우내 시장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한 병천순대는 맛이 담백하고, 몸에 좋은 단백질·지방·비타민 B·철분 등 각종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으며, 값이 비교적 저렴하여 천안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그리고 오이는 병천면 봉항리, 관성리, 도원리에서 많이 생산 되는데, 싱싱하고 맛이 좋아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다.
 3) 김진호, 「忠南地方 3.1運動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2. p

아우내 시장의 부지는 2012년 말 현재 1만 1283㎡에 달한다. 그 중 토지는 1546㎡이고, 장옥 건물 면적은 1257㎡이다.⁴⁾

아우내 재래시장의 장옥이 대부분 1919년 아우내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성되어 건물 노후가 심각해 시장 상인들이 화재와 재난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⁵⁾

필자는 아직까지 아우내 시장을 조사 연구한 선행 논문이나 단행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방법을 통해 아우내 시장의 유래를 고찰하여 아우내 시장의 역사적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정립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아우내 시장의 유래와 이동 경로

1) '아우내' 지명 유래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로 교통이 편리하여 조선시대 중기 이후 5일장인 재래시장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환장(1,6일), 입장장(4,9일), 병천장(1, 6일)을 들 수 있다.⁶⁾

병천은 멀리는 청주·진천·조치원으로 통하고, 가까이는 수신·성남·목천으로 통해 예로부터 장꾼들이 많이 모여들어 인근에서는 가장 큰 장터로 부상했다. 그리하여 기미년 3.1만세 운동 때에는 유관순(柳寬順)·김구응(金球應)·조인원(趙仁元)·이백하(李栢夏)·유중무(柳重武)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져 항일독립만세운동의 중심지로 떠올랐고,⁷⁾ 지금부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시장(牛市場)이 발달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소장사들이 소를 많이 거래했는가 하면⁸⁾ 해마다 봉화제와 단오축제가 개최되는 등으로 아우내 장터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⁹⁾

아우내(併川)란 지명은 '시내(川)'가 '아우른대(併)'는 데서 유래되었다. 아우내는 구계(九溪)·아내·아오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 있어 '아내장'이라 흔히 부른다. 여기서 '구계'란 철이 이내에서 생산되

4) 2013.1.2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사무소 홈페이지 우리 마을 소개 일반현황 참조.

5) 김병한, "아우내 병천시장 개선 절실", 충청일보, 2005.12.20일자. 2005년에 병천시장 43개소의 장옥 임차 인들이 사용허가 신청시 시에 손해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했으나 화재보험회사와 일반 보험사에서 시장 장옥이 노후(목조)하다는 이유로 손해보험계약을 거절해 증권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제 때에 장옥 사용료를 부과, 납부하지 못한 시와 임차인은 부득이 임차인들이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부과 받았다. 그리하여 천안시가 장옥관리 차원에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지방행정공제회 보험에 가입했다.

6) 천안시지편찬위원회, 『천안시지』(상), 천안합동인쇄공사, 1997.11.30. pp.1184-1185.

7) 민병달·이원표 편저, 『천안독립운동사』, 도서출판 한국문화, 1995.8.28. pp.167-173.

8) 손駿翼, 「아내장 순대-우리 고장의 특색음식」, 대한정판인쇄사, 1998.12. p.68. 아내장은 우시장으로도 유명했다. 쇠전의 활기는 멀리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쇠장사꾼을 유인하여 그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9) 辛相龜, 전계서. p.49.

므로 철내의 옛 이름이다. 그리고 성거산(聖居山)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시내가 목천현의 남쪽 10리에 이르러 복구정천(伏龜亭川)과 산방천(山方川)이 합류하여 병천(併川)이 되므로 두 물이 어울린다고 하여 '아내'라고 한다. 또한 '아우내 또는 '아오내'란 아홉내에서 온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¹⁰⁾

2) 아우내 시장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

아우내 시장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을 보면, 아우내 시장은 목천현(木川縣) 근동면(近東面) 지역으로 1895년 지방행정 편제 때 갈전면(葛田面)에 속해 있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일병천리, 이병천리, 일한천리, 신촌, 서원리 일부를 병합하여 병천리(併川里)라 하고 갈전면에 편입시켰다.

1942년에 갈전면이 병천면으로 명칭이 바뀌어지자 병천면 병천리가 되어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¹¹⁾

3) 아우내 시장은 18세기 중반에 개설

그러면 아내 장 즉 아우내(併川) 시장은 언제 처음으로 개설되었을까?

아우내 시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서 각종 농산물이 많이 생산 출하되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설 시기에 대한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언제 처음 개설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기준(趙璣濬) 교수가 지은 『한국 경제사 신강』에 의하면, 조선시대 초기에도 지방에 향시가 있었으나, 조선정부의 억압정책으로 인해 향시에서의 상거래는 활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선조 이후의 대동법 실시와 숙종대의 화폐정책에 자극 받아 상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18세기 후기에는 행정관부의 소재지인 각 도, 읍과 선박의 귀착지인 연안포구, 내륙의 교통중심지인 물화 집적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상업망이 형성됨에 따라 점차 지방상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한다.¹²⁾

그리고 『중종실록(中宗實錄)』권 27, 중종(中宗) 11년 11월 정미조(丁未條)를 보면, 조선시대 장시(場市)는 15세기 말 전라도 지방에서 제일 먼저 개설되었고, 중종(中宗) 11년인 1516년에는 충청도에서도 장시가 개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³⁾

10) 2013.1.2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사무소 홈페이지 우리 마을 소개 일반현황 참조.

11) 2013.1.1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사무소 홈페이지 우리 마을 소개 일반현황 참조.

12) 趙璣濬, 『한국 경제사 신강』, 일신사, 1995.8.31, pp.230-231.

13) 『中宗實錄』권 27, 中宗 11년 11월 丁未條, 15책 p.241. 政院曰 忠淸道 觀察使 權敏手 請於道內設場門 令戶曹議啓則 又農家之有 是固大幣 姑從民願 只於忠淸設場 他道則勿設可也.

또한 조선총독부가 1929년에 편찬한『조선의 시장경제』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군수를 감독하는 시찰관인 암행어사로 유명했던 박문수(朴文秀, 1697-1751)가 그 조상의 묘 앞에 시장을 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⁴⁾

그런가 하면 1808년에 서영보(徐榮輔)·심상규(深象奎) 등이 순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 5, 명전조(名厓條), 향시(鄕市)에는 충청도에 157개 향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우내장은 보이지 않으나, 인근의 직산(稷山) 덕평장(德平場)과 은진(恩津) 강경장(江景場)이 기록되어 있다.¹⁵⁾

그리고 김대길(金大吉)이 『관동사학(關東史學)』4집(관동대 사학회, 1989)에 발표한 「조선후기 지방 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면, 조선시대 장시의 개설은 양난을 경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17세기 말-18세기 초에는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벽지에도 개시(開市)되는 횡수는 적고, 상품교역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일반화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⁶⁾

한편 조선시대 정조(正祖) 3년인 1779년에 편찬된 『목천현읍지(木川縣邑誌)』, 허시조(墟市條)와 정조(正祖) 3년인 1779년에 안정복(安鼎福)이 편찬하고 1817년에 조국인(趙國仁)과 이 지방 유사들이 증보 속찬한 『대록지(大麓誌)』, 허시조(墟市條)에는 아우내 시장이 목천현의 동쪽 15리에 있으며 1일과 6일, 5일장으로 개장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

그리고 서유구(徐有渠)가 1845년에 지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제3권, 1908년에 남정철(南廷哲)·이재곤(李載崑)·이중하(李重夏) 등이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부록편 165번 등의 기록에도 병천장은 1, 6, 11, 16, 21, 26일에 개시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⁸⁾

따라서 아우내 시장은 18세기 초반부터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에 5일장으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아우내문화원이 2002년 12월 25일에 발간한 『2002 아우내 민속놀이』를 보면, 아우내 시장(아우내장)이 1750년에 개설되었다고 한다.¹⁹⁾

14) 朝鮮總督府, 『朝鮮의 市場經濟』, 1929. p.192. 二百年前總衣御使(都守)お監督せし視察官) 朴文秀か祖先の墳 墓の前にて開市せしに始まる. 最初河邊に在り道洪水お覆り且道路改築の必要に依り大正三年四月現位置に移れり. 取引は主に附近農民の日用品な常くのみにして出場商人が例年其場所に常設店舗お設くる傾向は現在の如き制度の惑は絶滅の概 お尋むものか.

15) 徐榮輔·深象奎 외 공저,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 5, 명전조(名厓條), 1808.

16) 金大吉, 『조선후기 지방 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 『관동사학(關東史學)』4집, 관동대 사학회, 1989. p.31.

17) 『木川縣邑誌』, 1779. ; 趙國仁 외 공저, 『大麓誌』, 1817. 東俗以墟市謂場日中交易而退縣內場四日九日 開併川場在縣東十五里一日六日開.

18) 徐有, 『林園經濟志』, 제3권, 1845. ; 1908년에 南廷哲 · 李載崑 · 李重夏 등 편찬, 『增補文獻備考』, 1908.

19)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전공 역음, 전개서, p.101. ; 金駿翼 편저, 전개서, p.69. 박문수 어사가 영조 32년인 1756년에 타계하기 수년전에 스스로 묘지를 선정하고, 비묘적으로 아우내 시장을 개설했다는 일화를 고려해 볼 때 1700년대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아우내 장터의 이동 과정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김춘식 교수가 2005년 12월 10일 단국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천안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인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 : 목천·병천 지역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아우내 장터는 초기에 병천리 234(현재 240 : 모든리아파트 1동 남쪽 개천가)번지와 289(현재 289-1 : 모든리아파트 1동 북동쪽 50m 지점) 번지의 일대 즉 병천교에서 북쪽의 아우내시장 쪽으로 50-100m 사이에 위치한 벌판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개천가의 아우내 장터가 자주 홍수를 당해 침수되는 바람에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14년 4월에 초기 시장 북쪽의 50-100m 지점에 위치한 300(현재 300-1 : 주택지)번지·301(현재 301-1 : 주택지)번지·302번지(현 모든리아파트 2동 중앙) 일대로 옮겨졌고, 바로 이곳에서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항일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 후 시장이 점차 커지자 1928년 무렵부터는 장터의 위치가 또 그 북쪽 20-30m 지점의 164(현재 164-1)번지, 166(현재 166-1)번지, 169(현재 169-1)번지, 293(293-1)번지, 294(294-1)번지 일대 즉 현재의 아우내 장터로 옮겨져 지금도 5일장이 서고 있다고 한다.

3. 나가는 말

병천면은 아우내 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민들이 대도시의 시민들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관순(柳寬順), 조병옥(趙炳玉) 등 항일독립투사들을 많이 배출하여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다.

아우내(併川)란 지명은 성거산(聖居山)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시내가목천현의 남쪽 10리에 이르러 복구정천(伏龜亭川)과 산방천(山方川)이 합류하여 병천(併川)이 되므로 두 물이 어울린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아우내는 구계(九溪)·아내·아오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 있어 '아내장'이라 흔히 부른다.

경상도와 한양을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아우내 시장은 18세기 중반부터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에 5일장으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전국의 상인들이 청주·진천·안성·조치원·예산 등에서 지역 특산물과 소를 물고 와 장을 형성했다.

아우내 시장은 처음에 병천리 240번지와 289-1번지 일대의 벌판에 형성되었다가 홍수를 당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북쪽으로 두 차례나 이동해 현재의 위치에 개설되었다.

아우내 시장은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순대와 오이 그리고 잡곡이 유명해 5일 장이 서는 날은 시장을 보러 나온 시장꾼들로 북적이다. 평상시에도 병천순대를 맛보기 위해 아우내 시장의 순대거리 양쪽에 즐비한 순대집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

2004년 4월 1일부터 고속열차(KTX : Korea Train Express)가 천안·아산고속철도역을 통과하고, 2005년 1월 20일부터 전철(電鐵, Electric Railway)이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지는 바람에 수도권 주민들이 병천을 많이 찾고 있어 병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위에 관광자원이 많고, 해마다 봉화제와 단오축제가 개최되는가 하면, 천안시가 지역 대표 향토음식인 병천순대를 명품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30억 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우내 시장(병천시장)은 조선시대 내륙의 주요 시장으로서의 그 명성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문헌

1. 『中宗實錄』卷 27, 中宗 11年(1516年) 11月 丁未條 15册.
2. 『木川縣邑誌』上卷, 1779.
3. 『大藤誌』上卷, 1817.
4. 徐榮輔·深象奎, 『萬機要藍 財用編 5』, 名塵條, 鄉市, 1808.
5. 徐有榮, 『林園經濟志』第3卷, 1845.
6. 朝鮮總督府, 『朝鮮의 市場』, 1924.
7. 朝鮮總督府, 『市街地の 商團』, 1926.
8. 朝鮮總督府, 『朝鮮의 市場經濟』, 1929.
9. 金大吉, 『朝鮮 後期 地方 場稅에 대한 基礎 研究』, 關東大 史學會, 『關東史學』4輯, 1989.
10. 오세창, 『천안의 옛지명』, 천안문화원, 1989.10.15.
11. 閔丙達·李元杓 編著, 『天安獨立運動史』, 도서출판 한국문화, 1995.8.28.
12. 趙煥濬, 『韓國經濟史 新講』, 日新社, 1995.8.31.
13. 金大吉, 『朝鮮 後期 場市 研究』, 國學資料院, 1997.
14. 천안시지편찬위원회, 『천안시지』(상), 천안합동인쇄공사, 1997.11.30.
15. 辛相龜, 『아우내 단오축제』, 아우내문화원, 1998.12.
16. 천안문화원, 『천안의 땅이름 이야기』, 도서출판 한국문화, 1999.12.25.
17. 김진호, 『忠南地方 3.1運動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2.2.
18. 金駿翼 편저, 『아내장 순대 : 우리 고장의 특색 음식』, 아우내문화원, 2002.5.7.
19.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전공 석·박사, 『2002 아우내 민속놀이』, 청통거울, 2002.12.10.
20. 천안시, 『천안의 맛 자랑』, 2005.11.
21. 김병한, 『아우내 병천시장 개선 절실』, 충청일보, 2005.12.20일자.

